

Better Days

한국은 지난 40년에 걸쳐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결과가 생겨났는데, 그중 하나가 긴 노동 시간 끝에 주어지는 짧은 휴가다. 먼 곳으로 떠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힘든 사람들은 긴 여행 대신에 주로 도시 주변에 머물면서 일상의 피로를 풀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다양한 여가공간과 사람들의 모습을 한발 물러서서 관찰하고 천천히 프레이밍을 하며 복잡한 상황이 균형을 이루기를 기다린다. 이 작업에서 드러나는 한국의 '빠른 라이프스타일'과 '공동체 지향적 개인주의'라고 불리는 오랜 유대감은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고 함께 즐기며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Better Days

Over the past 40 years, South Korea has undergone rapid development, resulting in various social consequences. One of the most striking is a culture of long working hours and short breaks. On holidays, Koreans do their best to enjoy time off, but due to time constraints, they often stay close to the city.

In my work, I take a step back in leisure spaces to observe both the environment and the people within it. Using a 4x5" film camera, I slowly frame each scene, waiting patiently to capture moments where complex elements come into balance. This series reflects aspects of Korea's "fast-paced lifestyle" and "community-based trust." It reveals how people adapt to their circumstances, seek joy together, and strive for coexistence.